

社 說

언제까지 등록금에만 의존할 것인가 — 94학년도 등록금 인상 방침을 접하여

얼마전 '전국사립대학 총학생 회의'에서는 94학년도 등록금 15%내에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물론 본교도 현재의 어려운 재정현황을 감안하면 이런 결정에 준하는 등록금 인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학생 등록금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그 등록금 인상폭을 물려주고 대학입학과 학생 생활의 차질이 빚은 대학의 혼란은 이제 오를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매년 10%를 상회하고 큰 폭으로 인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환경은 점점 더 낙후되어 간다는 데 있다.

낙후된 시설, 실험실습기재의 부족, 교수부족 등은 모든 사립대학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교육확보율은 역시도 국립대학은 87%, 사립대학은 66%로 법정정원수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비교해보아도 훨씬 열악한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는 모두 사립대학의 재정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대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학생의 등록금, 재단 전입금, 사회기부금 등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학의 경우 전체 재정 대비 학생등록금이 대략 75%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매년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하여야도 남을 자를 뿐이며, 지금과 같은 열악한 재정현황으로는 새로운 시설투자나 교육환경개선은 꿈도 내기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언제까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등록금 인상만을 거듭할 것인가? 대학교육 혜택은 학생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그 수혜자라는 사실을 염두에두고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양질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이제는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늘리고, 재단임입금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보조는 2%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일련의 10%, 영국의 20%에 비하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 육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교육재정 확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대학당국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해 재단임입금 증대, 각종기부금 유치, 사회기부금 확대 등 재단과 대학 정부의 자구노력도 전심한다.

농민을 더이상 울게 하지 마라

— 정부, 여당의 추곡수매안 결정에 부처

올해도 어김없이 정부와 농민간의 수매싸움이 시작되었다.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신 농정을 표방하고 나선 행정부의 이번 추곡수매안은 농민과 재단농부의 불만을 사기에 조무로 보자할 것이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은 금년 추곡 수매량을 9만만석, 인상을 3%로 확정 했다. UR형상 타당성연구의 인바우에 의한 쌀시장개방안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어떻게 결정된 모양이나 농협과 농민단체, 야당의 요구만큼은 뒷전이 차지한다. 정부의 치밀한 생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국회와 정치권에서의 파란도 불을 보듯이 예고되고 있으며 농민과 재단농부들은 실망감에 들어있다. 정부의 농민의 우월한 가혹자가 본격화 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양곡정책은 어떠한가. 사들인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하는 그동안의 이중가격제로 인한 제도적 모순이 심화되는 바람에 생산자,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불만이 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말해 농가생계보장과 물가안정을 막기위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격차와 불리의 누적으로 인해 현재의 양곡정책을 놓았던 것이다. 특히 양곡정책에 관한 633324440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 것은 사실이다. 당국이 쌀값을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 농민이치러늘어난 적자와 농민의 재산감만 고루지겠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이러한 농촌의 현실은 어떠한가. 농민은 또 어떠한가. 위정자들은 잘 알고 있지. 6백만 농민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농산물개발으로 농업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문민정권은 지

난한 실정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기술농업, 고기술농업, 수출농업을 천명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구를 5%로 줄여 기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음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그러나 이는 내수농업을 생필품으로 가진 대다수의 4백만 명이 넘는 일반 농민들을 농촌으로 쫓아 내어내는 행위와 아니고 무엇인지 묻고 싶다. 더우기 농업노동력의 격차와 고령화, 여성화된 마당들을 상기한다면 서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전적 없는 농민을 쳐부내고 자본가들이 이를 차지하는 '돌아오는 농정'을 만들겠다는 것이 신농정의 실체란 말인가.

비교우위의 절대적인 추아인 당국의 경제철학에 근거한 농정정책에 거의의 무리인 농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농산물시장개방이 통상타격을 완화하여 수출시장을 계속 확보하는 수단이자 효율적인 자본축적구조의 구축과 이의 지속을 위한 농업인력을 외화하는 방법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간파해서는 아니되겠다. 단적으로 이 것의 부패를 농민이 전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이다. 식량자급도는 32.5%로 낮아지고 농산물 수급결핍도 89.6%를 넘은 것으로 인해 이번에도 고추, 마늘, 쇠고기, 닭고기 등 14개 중요 품목이 개방된다면 남는 것은 쌀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농민을 죽여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다. 여언여언의 말을 흘려버린 수확하는 것이 싫다. 우리의 쌀 논쟁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권고 안된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쌀은 우리민족의 생명선이다 농업은 뿌리이다. 정부가 이번에 농민이 만족할 만한 수매를 하지않는다면, 이는 한국농업체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과제로 남은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 '총장선출 특별위원회' 청문회 지상중계

대학의 캠퍼스에는 선거열풍으로 뜨거워진 해다. 해마다 연말이던 실시되는 학생회선거와 9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총장선거가 올해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대학의 최고 결정자인 총장의 선거는 대학의 특수성과 맞물려 진통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총장선출에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수협의회에서는 지난 11월10일 총회를 갖고 총장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학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단체들과의 개별 접촉이 아닌 학생 직원 교수 그리고 동문회 등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집단담화나 공개적인 선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 본교 2층 대회의실에서 청문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총장선출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이 개진되었고, 대학주요에서는 총장선출에 대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기쉽게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권진자 註)

▲노조총합: 수원캠퍼스 전원의 입장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다는 발언은 유감이다. 수원에서 발표한 유인물은 수원행정과 이상의 직원들이 모임을 갖고 만들어낸 유인물이라 할 수 있다. 총장은 대학의 제 구성원의 의견이나 이해를 결집시키는 최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 집단의 참여가

이 공히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직선제의 의미는 단일 인준을 직접선거를 통해서 뽑아 내부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는 후 현행법대로 재단이 임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총장은 대학의 제 구성원의 의견이나 이해를 결집시키는 최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 집단의 참여가

단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만약 법이 잘못됐을 시에는 이를 고치기 위해서 투쟁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만약 법을 어기고 총장을 선출한 다음 재단과 학생들 사이에 법적문제가 발생하면 그 뒤 수습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농민정에서는 조정식 총장 사



노조 직선제 방식타당, 대학4주제 모두 참여해야

교수협 통한 직선제, '총장자격위원회' 제안 [총합]

등창회 재단임용 기본입장—교수협 결정에 일임

조의 입장은 직선제 선출방식이다. 선거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나 선거 관리과정, 대니아가 선거과정에서 대학의 제 구성원

게 되는 현행제도에 반대한다. 특정 집단에서 의해서 선출된 총장은 모든 구성원들의 이해를 수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수원의 교수-기능-교수직 직선제 방식의 이점과 교수협의회의 역할에 대해, 그 내용을 보면 현행법대로 총장을 선출할 것을 주저해 의견 표명할 수 있을 것, 현재 일의 단적인 교수협의에서 진행되는 청문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요지로 이루어져 있다.

▲총합총합: 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정치를 말한다. 따라서 민주국가 내에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은 사립대학교에 있어, 이를 보태 대학의 정치는 제정된 것이다. 학벌이나 학력도 법은 법이다. 따라서 등창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대로 제

비 이후 수확에의 보안을 가져왔다. 1차보안 때에는 학내의 상황과 정세에 조응하여 총장의 재가를 바탕으로 한 결정에 도달했으나, 조종장이 고사하는 바람에 재단에 의한 추대방식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식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교수협의회의에서 총장의 연구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일임한다.

▲총합총합: 그동안 실존론을 이용한 1, 2차 의견개진운동은 총회에서 편파적 결정을 내리고,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등창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되었다. 따라서 총합총합은 교수협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수협의회의 총회 결과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시에는 불복종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서는 일관성으로 고려해왔다. ▲대학원 학생회: 교수추천에 의한 직선제를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 이유는 교수사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수의견이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친인척을 비롯한 보직교수들과 소인(敝人)한 관계에 있던 정교수들의 관계가 좀더 공조와 협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 입지가 강해진 편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수협의회의가 잘 운영되면 교수협의회의가 현재와 같이 학생 직원과 학교당국 사이의 중재기구로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와 이해를 대변하여 총장선출에 일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설부)



POSOME에서 종강편

종강편이란? 하이테크 정보산업용 종강산업으로 세계최대기업의 위상을 다지는 포항제철-중공업 조종에서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품질향상을 위해 최다 종강을 기획하였습니다. 최첨단 품질관리와 고객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半字不成이란 말이 있습니다. 글자를 반만 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로서,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야 무엇이나 되지만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창 종강을 준비하는 지금, 종강을 끝까지 끝까지 1년간의 대학생활을 성실하게 마무리짓고 있습니까?

한번에 시작했던 것,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마지막 한 획까지 정성껏 써 보십시오. 성실한 마무리는 새로운 시작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품질무선으로 최대의 고객 만족

종강 편만 아니라 하이테크 정보산업용 종강산업으로 세계최대기업의 위상을 다지는 포항제철-중공업 조종에서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 9002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품질향상을 위해 최다 종강을 기획하였습니다. 최첨단 품질관리와 고객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는 품질무선으로 최대의 고객 만족을 위하여 최다 종강을 기획하였습니다.